

37

감옥에서의 전도

행 16장

찬송가 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 45장 (감사해)

오늘 배울



1. 복음의 전파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압니다.
2. 환란과 역경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큰 진보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행 16:30~32)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
 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
 진지라 (행 16:25~26)



을 이해하기

복음을 전하다보면 종종 이유 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난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 일행의 빌립보 투옥과 그 결과는 이러한 일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일깨워 줍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짐치는 여중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여중의 주인에 의해 고소를 당하여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렸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대신 져야 했기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로 생각한 간수는 자결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나섰는데 간수는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고 구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날 밤 간수와 그 가정의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투옥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비록 당장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분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행 16:30~32)

And he brought them out and sai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So they sai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Then they spoke the word of the Lord to him and to all who were in his house (Ac 16:30~32)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것은 도망가지 않은 이유나 옥문이 열린 이유 등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간수가 '구원'에 대해 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친구나 가족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무시나 비난 등 핍박을 받았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하였으며, 나는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2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곳곳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과는 같은 경험이 아닐지라도 내가 전도를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교제해 봅시다.

3

희생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내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 때의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을 교제해 봅시다.

4

현재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현재 전도 중에 받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분반 친구들에게 기도부탁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마 28:20

의

눅 9:26

화

롬 1:15~16

↑

롬 8:18

↓

딤후 1:12

↓

딤후 4:2

↓

딤후 4:5



주업과 부업

선교사를 모집하던 한 선교단체에서 많은 신청자 중에 한 구두수선공이 명단에 들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훈련받은 목사와 전도사들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구두수선공이란 직업은 자격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시간에 그의 직업을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의 직업은 그리스도인이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업은 그리스도인이며 부업은 구두수선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회사원, 상인, 주부, 학생 등등 많은 세상의 직업은 단지 우리의 부업일 뿐입니다. 혹시 나는 주업과 부업을 바꾸어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1~2)



질문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이고,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벧전 3:19~20)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벧전 4:6)

이 두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로써, 그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창 6:2). 여기서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셋의 후손이 타락하여 세상 사람들과 섞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심판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옥과 영이 다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셋의 자손이 물로 심판을 받고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기까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사람도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징계를 받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 4장에 기록한 것입니다.